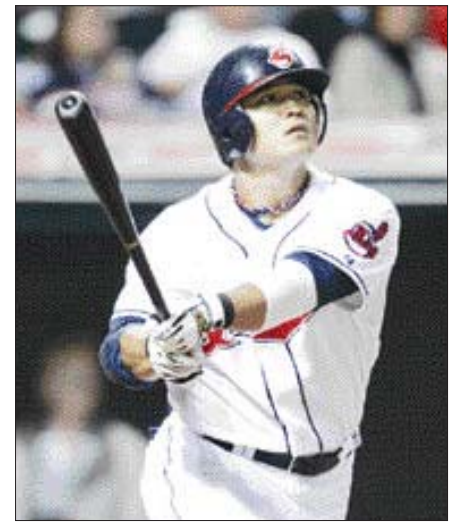




정상 향한 질주 “더위야 물렸거라” 무더운 여름에도 정상을 향한 스포츠 선수들의 끝없는 질주는 계속 되고 있다. 광주제일고 하키팀이 내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하키팀대회를 앞두고 27일 지옥훈련이라 불리는 ‘조 선대 분관 앞 계단 뛰어오르기’를 실시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MLB 추신수 한국인 첫 시즌 100안타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사진)가 2안타를 몰아치며 한국인 타자 중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시즌 100안타 고지를 밟았다.

추신수는 27일(한국시간) 시애틀 세이프 코필드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와 방문경기에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장, 6차례 타석에 들어서 5타수 2안타 1타점을 올리고 볼넷 1개를 골라내며 맹활약했다.

2-2로 팽팽하게 맞선 5회 무사 1,3루 기습에서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시애틀 선발 투수 제이슨 바르가스스의 바깥쪽 느린 슬라이더를 밀어쳐 적시타를 때려냈다. 3루 주자를 불러들여 타점도 1개 보탤었다. 시즌 타점은 57개로 늘어났다.

뒤이어 조니 페랄타의 만루홈런이 폭발하며 홈을 밟은 추신수는 6회에도 선두타자로나와 바뀐 투수 미겔 바티스타의 슬라이더가 가운데로 몰려자 그대로 받아쳐 센터 쪽으로 날아가는 시즌 20호 2루타를 쳐냈다. 이로써 추신수는 지난해 이미 최희섭의 한국인 최다안타 종전 기록(86개)을 추월한 데 이어 자신이 작년 시즌 기록한 98안타도 넘어서 최조로 한 시즌 세 자릿수 안타를 만들어냈다. /연합뉴스

이승엽 1군 복귀

2군 추락 2주만에

2군에서 컨디션을 조율해 온 이승엽(33·요미우리 자이언츠)이 2주 만에 1군에 합류한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투치’는 27일 인터넷판에서 하라 다쓰로리 요미우리 감독이 이날 이승엽을 1군에 불러 타격감각을 직접 확인한 뒤 엔트리 등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3일 1군에서 빠진 이승엽은 2주간 실전에 출전하기보다 스스로 타격 연습을 통해 밸런스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

2군 4경기에서 타율 0.200을 때렸던 이승엽은 27일 실제처럼 투수가 마운드에서 던지는 라이브 배팅에서 하라 감독의 눈도장을 받아야 한다.

울스타 휴식기를 마친 일본프로야구는 28일부터 후반기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우뚝 선 마운드 ‘가을잔치’ 예약



■KIA 상반기 성적표

더 강해진 KIA ‘가을잔치’에 도전한다. 전반기 KIA의 팀방어율은 3.72로 8개 구단 최고의 높이를 자랑한다. 반면 팀타율은 0.259에 불과해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KIA는 최고의 방어율과 최악의 타율이 라는 어색한 조합을 가지고 전반기 0.540의 승률(47승4무36패)을 기록했다. 안정된 마운드와 한방을 앞세운 타선의 집중력이 ‘극과 극’의 KIA를 이끌었다.

두 용병의 활약을 앞세운 든든한 마운드가 전반기 순항의 원동력이다.

전반기 3.04의 방어율을 기록한 구본슨(9승)과 로페즈(8승)는 17승을 합작했다. 팀내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해낸 이들도 바로 두 용병이다. 로페즈는 118과 3분의 1이닝, 구본슨은 112와 3분의 1이닝 동안 마운드를 지키며 KIA불펜에 숨통을 틔워줬다.

6승을 신고하며 좌완 에이스로 자리를 굳힌 양현종을 비롯해 광정철·손영민 등 1년 사이 부쩍 성장한 신예 선수들의 활약도 큰 힘이 됐다.

마무리 한기주의 극심한 부진 속에 윤석민과 유동훈의 노련미도 돋보였다. 임시 마무리를 자처하며 위기의 마운드를 구했던 윤석민은 3.21의 방어율로 3승3패7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다. 유동훈도 0.72의 방어율로 5승2패7세이브10홀드를 기록하며 불펜 에이스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용병·신예들 맹활약 팀방어율 1위

한방·집중력으로 끝지 팀타율 극복

한방을 앞세운 타선의 집중력은 ‘타율 플레어’ KIA의 순위싸움에 힘을 보탤다. 0.259의 팀 타율로 시즌내내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KIA는 득점도 422점으로 8개 구단 중 가장 적다. 하지만 타선의 결정력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친정으로 돌아온 김상현은 ‘해결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김상현은 23일 광주에서 열린 LG와의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2회 1사에서 중월홈런을 쏘아 올리며 올 시즌 9번째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김상현은 75개의 안타로 68타점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다. 타율이 0.225에 불과한 김상현도 8개의 홈런을 비롯해 45타점을 기록하며 ‘효율성 만점’의 타격을 선보였다.

‘최희섭 패밀리’의 한방은 타선의 무게를 더했다. 최희섭·나지완이 16개의 홈런으로 팀 홈런 1위를 달리고 있고, ‘미스터 올스타’에 빛나는 신인 안치홍이 12개의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지난 한해 팀 홈런이 48개에 불과했던 KIA는 전반기 87경기에서 87개의 홈런을 때려냈다. 수치상으로는만 따진다면 올 시즌 133개의 팀홈런이 가능할 전망이다.

올 시즌 프로야구의 순위경쟁은 그 어느 해보다 뜨겁다. 0.549의 승률로 1위를 지키고 있는 SK 와이번스부터 승률 0.517의 5위 삼성까지 매경기가 전쟁이다.

최고의 마운드와 허약한 타선의 어색한 동거가 이뤄지고 있는 KIA의 4강 싸움은 28일 롯데와의 사직 경기를 시작으로 다시 숨가쁘게 전개된다. /김여울기자 w00l@kwangju.co.kr

프로야구 중간순위 (27일 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속
1	SK	50	36	5	0.549	2승
2	두산	47	37	2	0.547	1패
3	KIA	47	36	4	0.540	2승
4	롯데	48	43	0	0.527	1승
5	삼성	46	43	0	0.517	1승
6	히어로즈	39	46	1	0.453	1패
7	LG	39	48	3	0.433	2패
8	한화	29	56	3	0.330	2패

를 더했다.

최희섭·나지완이 16개의 홈런으로 팀 홈런 1위를 달리고 있고, ‘미스터 올스타’에 빛나는 신인 안치홍이 12개의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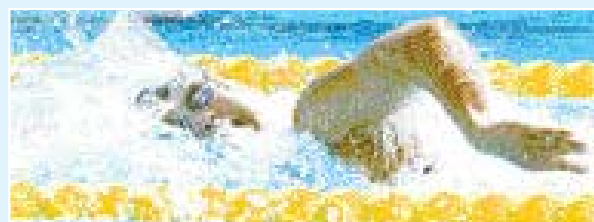
지난 한해 팀 홈런이 48개에 불과했던 KIA는 전반기 87경기에서 87개의 홈런을 때려냈다. 수치상으로는만 따진다면 올 시즌 133개의 팀홈런이 가능할 전망이다.

올 시즌 프로야구의 순위경쟁은 그 어느 해보다 뜨겁다. 0.549의 승률로 1위를 지키고 있는 SK 와이번스부터 승률 0.517의 5위 삼성까지 매경기가 전쟁이다.

최고의 마운드와 허약한 타선의 어색한 동거가 이뤄지고 있는 KIA의 4강 싸움은 28일 롯데와의 사직 경기를 시작으로 다시 숨가쁘게 전개된다.

/김여울기자 w00l@kwangju.co.kr

자유형 1,500m 亞 신기록 이번엔 누가?



박태환, 로마 수영선수권 장린과 격돌

박태환(20·단국대)이 라이벌 장린(22·중국·사진)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1,500m 예선에서 격돌한다.

27일(이하 한국시간) 발표된 2009 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1,500m 예선 스타트 리스트에 따르면 박태환은 4초 3번 레인에서 레이스를 펼친다.

3초에는 라이벌 장린이 5번 레인에 배정돼 예선전부터 팽팽한 접전을 예고했다. 박태환과 함께 아시아 수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주역으로 평가받는 장린은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에서 박태환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중국 수영의 기대주다. 이번 대회 자유형 400m에서는 박태환이 전체 12위의 저조한 성적으로 예선 탈락했지만 장린은 3분41초 35의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품메달을 땀다.

종전 아시아 최고 기록은 박태환이 베이징올림픽에서 세운 3분41초86이었다.

이제 박태환이 가진 아시아 최고 기록은 자유형 200m(1분 44초85) 밖에 남지 않았다. 장린은 자유형 400m과 800m, 그

리고 1,500m까지 아시아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자유형 중장거리에서 아시아 최강으로 우뚝 섰다. 박태환의 승부욕을 자극한 일이다. 자유형 1,500m에서도 박태환과 장린은 엇치락뒤치락하며 경쟁해 왔다.

박태환은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에 오를 때 자유형 1,500m에서 14분55초03으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장린이 베이징올림픽에서 14분45초84로 기록을 10초 가까이 단축해 버렸다.

박태환은 자유형 200m과 400m에 주력하는 사이 2007년 멜버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어 베이징올림픽 1,500m에서 잇달아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박태환의 이번 대회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자유형 1,500m 개인 기록 단축이다.

4초의 4번 레인에서는 라이언 코크레인(캐나다)이 불살을 가른다.

8월1일 치를 자유형 1,500m 경기에는 50명이 출전 신청을 해 10명씩 5개조로 나뉘어 예선을 벌여 상위 8명이 결승에 오른다. /연합뉴스



2009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박태환이 27일 오후(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 포로 이 탈리코 메인풀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200m 예선에서 조 3위로 들어온 후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박태환은 조 3위 전체 8위로 예선을 통과 했으며 28일 준결승 결과에 따라 29일 오전 결승을 치르게 된다. /연합뉴스

작년 종합 우승자 해밀턴

F1 헝가리그랑프리 우승

루이스 해밀턴(영국·맥라렌)이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1)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종합 우승을 차지했던 해밀턴은 26일(이하 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09시즌 10라운드에서 4.381km의 서킷 70바퀴(총길이 306.63km)를 1시간38분 34초876에 달려 올해 첫 우승을 신고했다. 2위 키미 라이코넨(핀란드·페라리)을 11.529초 차로 따돌렸다. F1 사상 최초의 흑인 드라이버로 혜성처럼 나타난 신인이던 2007시즌 종합 2위, 지난해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거칠 것이 없었던 해밀턴은 이번 시즌에는 9차례 레이스에서 3위 이내에 한 번도 들지 못하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연합뉴스